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6년도 표어 ◎

"성숙한 교회를 이루자"(엡4:13)

◎ 생활지침 ◎

- 섬기는 생활
- 주는 생활
- 경건한 생활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사랑은 이웃에게, 복음은 만민에게"

'96비전 2000운동 다음 주일 시작 - 오늘은 태신자카드 작성

다음 주일에 '96 비전 2000운동이 시작된다.

비전2000 운동이란 21세기가 되기 전,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도록 하자는 운동이다. 우리교회는 1991년 교회창립에 앞서 7주간의 특별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했고, 50일째 되는 11월 24일에 교회창립예배를 드렸다. 그 후에도 해마다 교회설립일 50일 전이 되면 비전2000운동을 선포하고 기도와 전도운동을 전개해 왔다. 교회 설립일을 7주 앞두고 해마다 50일간 가지는 우리 교회의 이 행사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일을 집중적으로 행하며 전도를 위한 기도운동을 겸하여 벌이고 있다.

올해에도 이와 같은 취지하에서 10월 6일 찬양예배 시에 발대식을 갖고 50일간의 기도와 전도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오늘 나누어 가진 태신자카드를 한주간동안 작성하여 다음 주일 I, II, III부 예배 시에 제출하게 된다.

다음 주일에 시작되는 '96 비전 2000운동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비전2000 운동은 지구촌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도록 기도하며 여러 모양으로 전도하는 운동이다 (사경은 '96비전2000운동의 일환으로 열린 1996년 청소년찬양집회 한 장면).

도, 모든 모임 후 노방전도, 사랑과 봉사로 행동으로 하는 전도 실행) 잃은양 찾기 - 각 기관별 배가운동을 전개한다.

▶ 주제성구 및 찬송

- 주제 성구 /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20절)
- 주제 찬송 / 찬송가 259장 "빛의 사자들이어"

▶ 기도제목

1. 영혼 사랑하는 마음과 복음전할 기회, 담대함, 지혜를 주옵소서.
2. 가족, 친척, 친구, 이웃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하소서.
3. 복음 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하여 주옵소서.
4. 잃은 양을 찾게 하옵시고 각 기관과 다락방마다 배가(倍加)되게 하옵소서.
5. 세계복음화의 센터가 될 예배당 건축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6. 복음으로 한국교회가 새로와지게 하시고 북한에도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7. 우리 교회와 농어촌 자매교회, 우리의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옵소서.

▶ 표어

사랑은 이웃에게, 복음은 만민에게

▶ 행동강령

- ① 기도하자 ② 복음 전하자 ③ 잃은 양을 찾자

▶ 목표

- 기도 - 다니엘기도와 50일연속기도, 모든 공예배와 기도회에 참여하여 쉬지않고 기도한다.
- 전도 - 전교인이 빠짐없이 전도의 열매를 맺는다.(믿지않는 가족초청, 1인10명전

● '96비전2000운동을 통해 ●

- "주님의 지상명령을 순종하여 2000년까지 지구촌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도록 합시다.
-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세워졌음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좀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읍시다.
- 아직도 전도를 못해보았다면 이번 비전 2000운동을 통해 전도를 경험해 봅시다. 성령님을 힘입을 때 '나도 전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 각 기관과 교회학교, 선교회와 전도회, 다락방들은 잃은 양을 찾아나섭시다. 내가 속한 부서의 구성원이 배가될 수 있도록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와 전도를 통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며, 기도 모임들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체감을 얻을 수 있도록 열심을 내봅시다.
- 민족복음화와 복음화된 통일조국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기회로 삼읍시다.

▶ 주요행사 일정

- 9월 29일 / 태신자 카드 작성
- 10월 6일 / 발대식, 태신자 카드 제출, 50일 연속기도회 시작, 현판식
- 10월 13일 / 교구별 노방전도, 축호전도
- 10월 20일 / 교회학교별 노방전도
- 10월 26일 / 청소년 찬양집회
- 10월 27일 / 새가족환영회
- 11월 3일 / 전가족 만남의 주일
- 11월 10일 / 기관별 노방전도
- 11월 17일 / 전교인 전도 대행진
- 11월 24일 / 교회설립 4주년 감사예배, 전체 만남의 주일, 승전감사예배 및 새가족 환영회

(평신자 4인)

빈야드운동 (The Vineyard Movement)

이 글은 지난 16일 목회자신학세미나에서 이종운 목사가 강연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빈야드 크리스찬 펠로십(Vineyard Christian Fellowship)의 창설자요 목사인 존 윈버(John Wimber)는 1977년에 미국 캘리포니아 파사디나에 있는 자기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다.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교세가 확장되고 있다. 윈버목사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홀리신 학교 세계선교학교의 조교수이기도 했다. 그는 <기적과 교회성장학>이라는 과목을 가르치면서 <능력전도(Power Evangelism)>라는 책을 펴냈는데 후일 이것이 <능력치유(Power Healing)>라는 것이 되었다. 이 책은 몇몇 복음주의 선교학자들의 추천을 받고 있다. 고로 John 윈버의 입장을 우리는 가볍게 취급할 수는 없다.

I. 윈버가 주장하고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1. 영적전쟁문제

윈버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마귀들과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탄의 왕국과 전쟁이 붙었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군병이므로 사탄과 대항하도록 권세가 주어졌으며 사탄을 집어던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윈버는 그리스도인으로 대표되는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왕국을 힘의 대결로 본다. 누가 강한지 그리고 누가 이길 것인지 서로 시험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2. 능력전도문제

하나님의 초능력을 나타내는 기적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윈버는 주장한다. 표적과 기사로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다른 사람이 개인적으로 행한 일이나 생각한 바를 하나님으로부터 특별계시를 통해 개인이 받기도 하고 행하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같은 계시를 '지식의 말씀(word of knowledge)'이라 부른다.

윈버가 추천하고 있는 것과 그가 프로그램 전도(programmatic evangelism)라고 부르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먼저 지적해야 한다. 프로그램전도는 전통적 전도를 말한다. 메시지 중심이며 합리적 토론으로 호소하는 것이다. 어떤 신령한 은사의 도움없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는 것이다. 이같은 것은 하나의 전도 행위인고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성숙한 신자가 되게 하기보다 회심케 하여 그리스도를 영접케 하는 것에 목표를 둔다.

그러나 능력전도(power evangelism)란 순간 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사람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을 계시로 받는다는 것이다. 능력전도에서 가장 방해되는 것은 간음, 고통, 육체적 질병, 악귀들림이며 따라서 이것들을 버리거나 거기서 벗어나거나 이겨야 한다. 특히 새신자가 이같은 방해물들로부터 자유케되면 영적 성장을 미래에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능력은 지적 동의가 없이도 진정한 회심 경험을 갖게한다고 한다. 이것이 그들은 생애 동안 견고한 기초가 되며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회심을 통한 만족을 얻게 된다고 한다.

짧고 효과적이며 최선의 전도방법으로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강하고 급하게 성장케 하며 특히 구원의 확증은 기적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II. 빈야드운동은 성경적인가?

이 운동은 성경의 교훈과는 멀리 있으며 위험하고 잘못된 주장이라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윈버의 주장을 비평하기 전 그들의 주장에서 배워야 할 것도 있음을 잊지말자.

1. 영적 전쟁의 실체 그리고 그 심각성에 대하여는 우리도 같은 입장을 취해야 한다.

세계복음화를 위한 로잔위원회가 1996년 2월에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모였을 때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당면한 제일 큰 문제를 '영적 전쟁'이라고 규명한 바 있다. 에베소서 6장을 비롯한 여러 성경에서 사탄과의 전투를 경고해 주고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서 6장에서는 사탄과 전투하기 위해 기적을 일으키라고 가르치지 않았다. 성도에게 임해진 웃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 주셨다(엡6:17).

2. 전통적인 기성교회들이 지식 위주의 신앙을 말할 뿐 가슴에 움직이는 영성이 결여되고 있음을 우리는 정직히 시인해야 한다.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것은 있으나 전도에 큰 힘을 쏟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3. 하나님께서 지음도, 일(기적?)하고 계신다는 주장을 수용해야 한다.

물론 계시적 의미의 기적은 이미 끝이 났지만 우리의 이성과 이해의 범주를 넘어선 일들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일어났고

또 일어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지 않은가.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불치의 병에서 회복케 하시고 긍정적으로 응답도 주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신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기적으로 풀려고 해서도 않된다. 기적을 행하거나 특별계시를 받아 전도를 한다는 것은 성경교훈과 다른 것이다.

III. 기사와 표적에 대한 성경적 이해

윈버에 대한 주된 비판은 결국 그가 주장하는 '기사와 표적'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 물어야 한다. 표적(sign)은 그것이 가르키는 것이 표적 자체보다 더 위대하다. 그리고 표적은 그것을 보는 이들로 하여금 놀라게 한다. 고로 기사와 표적이란 정상적이 아닌 놀라운 사건을 말한다. 1987년에 윈버는 호주의 복음주의 연맹에 속하는 교회 목사들에게 자기 주장을 방어하기 위해 호주를 방문했다. <존 윈버의 가르침에 대한 응답: 기사와 표적 그리고 복음주의자들>이라는 책이 출판되었기 때문이다.

존 우드하우스(John Woodhouse) 교수가 성경에 계시된 기사와 표적에 대한 연구논문을 그 책 속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그의 지적은 매우 바른 것들이었다.

1. 하나님의 역사적 구원활동과 함께 하는 기사와 표적들

기사와 표적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에서 가장 잘 나타났다. 출애굽사건의 기사와 표적에 관한 성경말씀은 출애굽기 7장 3~4절, 신명기 26장 8절, 사도행전 7장 36절에 나타난 바와 같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날 경우 심판의 사인을 말씀하시기도 했다(신28:45-46).

예수님의 사역 중에 나타난 기사와 표적에 대하여는 사도행전 2장 19절과 2장 22절에 나타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기사를 보이시듯 주님의 구원사역에서도 기사가 나타났다. 그러나 구약의 기사나 신약의 기사가 믿는 것을 기억케 하기 위한 구원 사건이지만 오늘날의 것과는 같지 않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기 백성을 기억하고 있음을 기사와 표적을 보이심으로 나타내셨다. 불신앙의 사람들은 그 놀라운 기사를 기억

치 못한다. 그들은 또다른 기사와 표적을 구했으나 그것은 최악이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처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과 기사를 구하지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지 않았던가(마12:39).

기사와 표적은 그것을 보는 이의 마음에 믿음을 창조하지 못한다. 오히려 바로처럼 마음을 강박케 한다. 애굽에 내린 재앙이나 그리스도의 기적들이 믿음을 만들지 못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오늘날의 기적 속에서 보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증진시키지 않는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죽음에서만 우리 믿음은 생긴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전1:22 - 24).

2. 거짓된 기사와 표적들

웜버는 이같은 기사나 표적을 말한 적은 없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같은 것들이 많이 있다.

신명기서에서는 기사와 표적을 행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다(신13:3).

예수님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택한 자를 속일 것이라고 하셨다(마24:24).

사탄과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짐승이 속이는 기사와 표적을 행할 것을 계시록 13장이 가르친다.

필자는 웜버와 그의 추종자들이 사탄의 힘을 빌려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기사와 표적은 성경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며 자기가 유발한 ‘심리적 치료’를 일으킬 정도라는 것이다. 그리고 기적만으로는 아무 것도 증명해 낼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해 두고 싶다. 그것이 사실이고 교훈적일 수 있듯이 동시에 거짓되고 속이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기사와 표적이 불신자들을 회심케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가르친 말씀을 성경에서는 찾을 수 없다.

3. 하나님의 선지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사인들

몇 개의 기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기적이라 부르지 않는다(사8:18, 사20:3, 겔12:1 - 11, 겔24:15 - 27). 그것들은 흔히 상징적 또는 중요한 일이나 행동으로 간주된다.

4. 사도들의 사인들

사도들이 행한 기적들이 기사로 성경에 나타났다. 사도들의 독특한 직분과 사역에서 기사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니”(행2:43).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행5:12).

“사도의 표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고후12:12).

이같은 기적을 빈야드 운동원들은 강조한다. 그러나 이같은 기적을 오늘의 것으로 만들려는 그들 지도자들은 근본적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해석학에서 중요한 원리 중 하나는 설화사건(narrative events)은 교훈적 또는 가르치는 사건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사건이 한 번 또는 그 이상 일어난 것을 규범적인 것으로 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규범적인 것은 신약성경의 설명적 교훈에 의해 정해진다. 우리가 이는 바와 같이 전도는 기적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가르치지 않았다. 계시의 사인인 기사와 표적은 오늘날 볼 수 없으며 빈야드운동에서 말하는 기사와 표적이 성경의 것과는 그 의미도 다를 뿐 아니라 같지 않다 할 것이다.

IV. 능력보다는 연약함을

‘기사와 표적운동’은 성경교훈과 배치될 뿐 아니라 성경을 떠난 교훈을 가르침으로 오히려 우리 신앙에 유해하다. 해롭지 않은 잘못도 있지만 이 운동은 잘못되었을 뿐 아니라 신앙적 해를 가져다준다. 어떻게 해로운가?

1. 그들은 값싼 기적을 말한다.

필자는 기적을 믿는다. 그러나 내가 기적이라 말할 수 있는 무엇을 보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나는 믿는다.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오늘날 우리 중에서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들 편에 서지 않는다. 하나님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는다. 악취들린 자나 우상숭배자들을 구원키 위해 믿음으로 일하는 선교사들에 의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그러나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든 하지 않았든 전도하기 위한 것이다. 웜버가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점이다. 그러나 그는 사탄이나 귀신추방을 그리고 기적까지도 쉽게 생각하고 마치 자신의 전유물인양 생각한 것이 그들 운동의 허점이다.

2. 그들은 값싼 복음을 말한다.

종기를 치료하고 허리를 고치고 소위 능력치유를 위한 복음으로 복음을 감등시키고 있다. 사실 그의 책 (Power Evangelism) 속에서 복음의 메시지는 언급되고 있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상에서 이루신 것이나 그의 부활을 통해 성취하신 것은 말하지 않고 기적에 대한 이야기만 가득히 하고 있다. 웜버의 말을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면 복음을 듣지 않고도 회심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의 책에 기록된 한 예를 들어보자. “어느 날 우리 청년회원들이 주차장 부근에 나타난 어느 낯선 사람을 만났다. 청년들은 즉시 그를 위하여 기도했다. 그는 땅에 쓰러졌다. 얼마 후 그는 일어났다. 그 낯선 사람은 회심했다. 그는 지금 우리 교회 회원이다(이부분을 강조했다).”

3. 그들은 고난도 배우력으로 만든다

고난은 여러가지 원인으로 생긴다. 어떤 것은 우리 자신이 원인이 된다. 또다른 경우엔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성숙과 자기가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경우도 있다. 욕의 경우가 그렇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 그리고 오늘 날도 하나님의 백성 중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 중 많은 것들이 이같은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기적의 종교를 말하는 이들은 이 고난의 가치를 축소시킨다. 고난의 악마를 빨리 추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필요한 고통과 무거운 짐에 눌러 괴로움을 겪을 뿐이라 한다. 우드하우스는 주장하기를 “기독교 복음은 성숙한 기독교 신앙을 산출할 충분한 힘이 없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한 복종을 하게끔 하기엔 충분한 계시가 못된다. 그리스도가 완성한 사역은 효과적 전도를 하기엔 충분히 적절치 못하다. 그리스도의 재림 소망은 고난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기에 충분치 못하다”고 한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사탄을 이기었노라고 계시록에서 가르치고 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계12:11).

오늘날 우리도 사탄의 미혹과 거짓 영들의 잘못된 교훈을 그리스도의 피와 그의 복음의 말씀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확신한다.

주)

1) Wimber with Springer, Power Evangelism, p. 26

2) Doyle, Signs and Wonders, pp. 34, 35

'96비전 2000운동 조직

위원장 이종윤 목사

지도 이순환 목사

본부장 김태기 장로

1. 진행분과

◇위원 = 이순환 김태기 김영준 탁경준 신용식 서춘식 최형렬 김규태 이은희 김숙자 김양숙 강신덕 최양혜 김경아 이종심 금용숙 강운숙 박은미 최미아

◇주요업무 = 총책임, 태신자카드관리, 초청서신·양육서신 제작 발송, 상황판 제작, 관리

2. 홍보분과

◇위원 = 김명현 이영기 박두호 김세재 정동호

◇주요업무 = 각종 홍보물 기획·제작, 사진촬영

3. 전도분과

◇위원 = 이순환 박귀환 이성득 원 호 임진태 김명현 이웅선 박철훈 오정수 정병무 김태기 홍정호 김광신 김대호 나희주 윤봉준 노문환 최종시 왕경래 성준경 윤찬오 박동준 조정식 권영복 임상현

◇주요업무 = 전도대 조직 운영, 축호전도·노방전도 주관, 70인전도단·심야전도단 활동 주관

4. 기도분과

◇위원 = 박귀환 방계운 김동호 유복달 우선자 최 완 박경희 윤문자 김순자

◇주요업무 = 50일연속기도·다니엘기도 주관, 금요기도회·찬양예배 후 전교인기도회·새벽기도회 후 합심기도회 주관

5. 교육분과

◇위원 = 원 호 나희주 서춘식 권영복 허찬우 신용식 임상현 안의경 김세재 하영수 김영준 왕경래 박두영 서문석 이남복 이성애 현경옥 최윤정 이정자 김정희 윤갑숙 주경자 원복순 전인화 김선미 김중복

◇주요업무 = 교회학교의 비전2000 운동 계획·실행, 잃은양찾기운동 전개, 학원전도실시, 찬양집회

6. 안내분과

◇위원 = 임진태 최종시 예배위원 안내위원 차량관리위원

◇주요업무 = 예배안내, 차량관리, 새가족안내 및 환영

7. 재정분과

◇위원 = 오정수

◇주요업무 = 예산 수립 및 실행

■ 목회자동정 ■

* 이종윤 목사는 10월 1일부터 3일간 강원도에서 열리는 대한 기독교감리회 교역자연합수련회의 강사로 참여한다.

10월 행사 게시판

일자

행사

6일

'96 비전2000 운동 시작

- 비전2000 운동 발대식 및 운동본부 현판식
- 태신자카드·연속기도회 신청서 제출
- 50일연속기도회 시작(11월 24일까지)

7일

제 10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⑥

13일

교구별 노방전도·축호전도

14일

제 10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⑦

16일

10월 학습·세례식

20일

교회학교별 노방전도

21일

제 10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⑧

23~24일

교회건축을 위한 바자

26일

찬양전도집회(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27일

새가족환영회

고 3을 위한 기도결연예배

28일

제 10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⑨

환영합니다. 새가족 여러분!

오늘 찬양예배 시 9월 새가족 환영회

9월에 등록한 새가족은 예배 전 인도자와 함께 예배실 앞에 마련된 환영석에 앉아 주십시오.

* 9월의 새가족 *

김재술 문재화 이동주 김갑순 황민자 황정애 최은하 김재연 배순영 강춘영 임재형 김선경 송홍문 그리고 오늘 등록하신 분

■ 제 10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

- 5 9월 30일 · 제 1교시 / 로마서 강해 (이종윤 목사)
- 제 2교시 / 소비문화와 한국경제 (서상목 박사)
- 6 10월 7일 · 제 1교시 / 로마서 강해 (이종윤 목사)
- 제 2교시 / 기독교 신앙과 전통윤리 (김중기 박사)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춘천기독교방송(HLDC 93.7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N 1188KHz)	생명의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 30분
대진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침	주일 오후 10시 ~ 10시 45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감동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감동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비전2000 운동을 위하여
2. 목회자신학세미나와 한국교회 갱신을 위하여
3. 우리나라 육해공군 장병들과 안보를 위하여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